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 첫선…청년월세 상시 전환

광주시 청년정책조정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의결

94개 사업 4499억…RISE 연계 등 일자리·주거 집중

광주시가 올해 새로 시행하는 케이-아트(K-ART) 청년창작자 지원사업 등 청년정책 사업에 4499억원을 투입기로 했다.

광주시는 1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일자리와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개 분야 94개 사업에 4499억 원 규모의 ‘청년정책 시행계획안’을 의결했다.

신규 사업으로 7억5600만원을 편성에 케이-아트(K-ART) 청년창작자 지원사업을 추진, 청년

예술가들이 생계 걱정 없이 창작활동에 집중하도록 돕는다.

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상시 사업으로 전환한다. 정부의 교육사업과 발맞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사업(879억원), 글로벌 대학 지원(348억), 창업중심대학 사업(65억원)을 중점 추진해 지역과 대학 동반 성장을 목표한다.

분야별로는 일자리 청년정책에 1375억원을 투

입, 33개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구직활동수당’, ‘청년일경험드림사업’, ‘청년창업 특례보증’ 등 취·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장기 미취업이나 구직 단념 위기에 처한 청년들의 제도약을 지원한다.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20개 사업에 840억원을 투입해 지역의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청년 인재를 양성한다. 구체적으로 지역ICT 이노베이션 스케어 조성, 광주인공지능 사관학교 운영, 인공지능대학 원지원,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 글로벌 대학 지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빛고를 직업교육혁신지구 등을 통해 미래산업과 지역산업 현장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주거 분야는 1485억원을 들여 9개 사업을 시행한다. ‘청년월세지원’, ‘청년 맞춤형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주거부담 경감 사업과 ‘상무지구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남도학숙 운영’ 등 주거 공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금융·복지·문화 분야는 26개 사업에 783억원을 투입한다. 청년들의 초기자산형성과 부채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13통장’, ‘광주형 청년일자리공제’, ‘청년도림은행(재무상담소)’ 등을 추진한다. ‘은둔형외톨이 지원센터 운영’ ‘자립준비청년 지원’, ‘청년정신건강지원’, ‘청년중독예방관리’ 등을 통해 사회적 고립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청년을 보호한다. 또,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지원’,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광주 G-패스)’를 통

해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전망을 마련한다. 청년 문화기반 조성사업으로는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케이-아트(K-ART) 청년창작자 지원사업’, ‘청년문화예술패스’ 등을 시행한다.

참여·기반 분야는 6개 사업에 15억원을 투입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회’, ‘청년센터 운영’ ‘청년정책통합플랫폼’등을 운영, 청년의 정책 참여를 보장한다.

한편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관원 실·국장, 청년정책 활동가, 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된 광주시 최고 청년정책 심의·의결 기구다. 위원회는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K-전남김 돌풍 이어갈 ‘햇바디2호’ 신제품 등록 출원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잇바디돌김 개량…빠른 성장·높은 생산성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 2021년부터 개발한 잇바디돌김(일명 곱창김) 계통 신제품 ‘햇바디2호’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센터에 신제품 등록을 출원할 예정이다.

햇바디2호는 종자 생산 기술 확보와 시험양식, 특성 조사와 선발 육종을 거쳐 4년 만에 개발된 품종이다.

기존 잇바디돌김보다 씨앗자머니(각포자낭) 형성과 성숙도가 높고, 씨앗(각포자) 방출량이 많아 김발에 부착되는 씨앗 수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성장 속도가 빠르고 김발에 부착하는 뿌리가 강해 생산량 증대가 기대된다. 또 어업인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햇바디1호’와 비교해도 품질 경쟁력이 뒤지지 않으며, 염체가 길고 가늘게 자라 고품질 곱창김 생산이 가능한 점도 강점이다.

잇바디돌김은 우리나라 토종 품종으로 맛과 품질이 뛰어나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선호하는 품종이다. 김 양식 품종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인



햇바디 2호

10~12월에 생산되며, 길고 가늘어 구불구불한 모양이 곱창과 닮아 ‘곱창김’으로도 불린다. 현재 양식되는 김 가운데 가격이 가장 높은 고부가가치 품종으로, 전남지역에서 주로 양식되고 있다.

2025년산 전남 김 시설량 92만5000척 가운데 잇바디돌김은 25만척으로 26.3%를 차지했다. 전체 생산량 53만9000t 중 2만3000t(4.3%), 생산금액 8408억원 중 1035억원(12.3%)을 차지해 경제적 비중도 크다.

다만 잇바디돌김은 씨앗 형성이 낮고 김발에 씨앗을 붙이기 어려워 생산량 편차가 크며,

해황에 따라 품종 차이가 커 양식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햇바디2호는 이런 단점을 보완한 품종이다.

해양수산과학원은 햇바디2호 품종 등록 출원과 함께 잇바디돌김을 양식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신제품 종자 보급을 위한 대량 종자생산에 나설 계획이다.

신제품 등록을 위해서는 수산물품질관리센터에서 2년간 신규성과 안전성 등 재배심사를 거쳐야 해 재배시험도 병행한다.

멸종 위기에 놓인 토종 ‘참김’ 복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2025년 10월 중순 채묘 후 시험양식을 해남 2곳, 강진 1곳, 여수 1곳 등 4곳에서 실시한 결과, 염장이 10cm 내외로 성장해 양식 가능성을 확인했다. 토종 참김 역시 신제품으로 개발해 과거 임금에게 진상되던 고부가가치 김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종남 전남해양수산과학원장은 “급변하는 해양환경에서도 김 양식 산업이 지속 성장하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품종 개발에 힘쓰겠다”며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품종 개발을 위해 김 양식어업인의 관심과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햇바디 2호 시험어장 전경

세계김치연구소, 한·미 국제공동연구 박차

美 식단 가이드라인에 포함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 협력

장 건강 과학적 근거 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소장 장해춘)는 최근 발표된 ‘미국 연방 식단 가이드라인(2025~2030 Dietary Guidelines for Americans)’에 김치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김치의 장 건강 및 장관면역 기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한·미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미국 연방 식단 가이드라인은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농무부(USDA)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국가 차원의 식생활 정책 기준으로, 학교 급식과 군·병원·공공 급식, 영양 지원 프로그램 등 미국 공공영양 체계 전반에 폭넓게 적용되는 핵심 지침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김치(Kimchi)를 포함한 발

효식품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치가 특정 국가의 전통 음식이라는 범주를 넘어 과학적 근거를 갖춘 식품으로서 미국 국가 식단 체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세계김치연구소는 그동안 김치 및 김치 원·부재료의 영양성분, 발효 메커니즘, 미생물 생육 특성, 섭취와 건강 지표 간 연관성 등을 중심으로 과학적 연구를 지속해 왔다. 특히 전임상 연구, 영양역학 연구,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해 김치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장 건강 및 면역 조절, 항비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왔으며, 관련 성과는 국제 학술지뿐 아니라 미국 NBC 뉴스, 건강 전문매체 등에 소개되며 김치의 건강 가치에 대한 관심과 수용도 확산에 기여한 바 있다.

세계김치연구소는 2023년부터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UC Davis)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고 ‘김치의 장관면역 기능성 규명’을 위한

한·미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인과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체 적용시험과 다중 오믹스 분석을 통해 김치 섭취가 장내 환경과 면역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임상 연구와 임상 연구를 단계적으로 연계해 진행되며, 김치 섭취에 따른 △장내 미생물 변화 △면역 반응 조절 특성 △관련 대사물질 특성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한다.

세계김치연구소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가와 식품업계에 대한 김치 섭취 효과와 비교·분석할 수 있는 국제 공동 데이터를 구축하고, 축적된 과학적 근거가 향후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의 식단 가이드라인 논의와 공공영양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신뢰도 높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해춘 소장은 “글로벌 식단 정책 환경에서 식품의 건강 기능성 논의하기 위해서는 인체 기반의 과학적 근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추후로도 국제공동연구와 같은 김치의 장 건강과 면역 기능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를 산업계에 제공해 해외 시장에서 김치 수요 확대의 교두보를 마련함으로써 글로벌 김치산업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협광주본부는 19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축하화분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새해 ‘사랑의 1004운동’을 힘차게 시작했다.

농협광주본부, 새해 ‘사랑의 1004운동’ 출발

축하화분 경매·기부 행사…저소득 계층 의료비 지원

농협광주본부(본부장 이철호)는 19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축하화분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새해 ‘사랑의 1004운동’을 힘차게 시작했다.

행사는 이철호 농협광주본부장, 임철현 NH농협은행 광주본부장, 한제구 노조위원장 등 범 농협 임직원 50여 명이 참여해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기부 활동에 적극 나섰다.

축하화분 경매·기부행사는 축하선물로 받은 화분을 기부 받아 필요한 직원에게 경매방식을 통해

판매하고, 수익금 전액을 ‘사랑의 1004운동’ 기금으로 적립한다. 조성된 성금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소외계층의 의료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철호 본부장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인 성정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협, 국민에게 신뢰받는 농협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업 공공 인력공급 비중 60%로 늘린다

농식품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확대

정부가 농업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의 농업 고용인력 공급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60%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발표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에 따르면 농가 수요가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이 확대된다. 상반기 계절근로 배정 인원은 역대 최대인 9만2104명으로 지난해 11월 기준 도입 인원(7만3885명)보다 1만8219명 늘었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기관도 오는 2030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외국인력 도입

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내국인 고용인력 비중도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원거리 노동자에 대한 교통·숙박비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여성·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구직 정보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주요 작물별 표준 농작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기계 사용법 등 전문교육도 지원하는 등 고용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마련한다.

고용인력의 숙련도를 높여 농작업 효율을 높이는 데도 나선다.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기간을 현행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하고, 우수 인력은 비전문취업(E-9) 비자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숙련기능인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전남 농수산식품, 자카르타 간다…수출상담회 판촉전

전남도가 오는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2026 자카르타 농수산식품 수출상담회 및 판촉전”에 참가할 도내 기업을 모집한다.

전남도는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자카르타 현지에서 전남 농수산식품 전시·판매와 함께 해외 바이어 발굴, 수출 계약 연계를 목표로 수출상담회와 판촉전을 운영할 계획이다. 동남아 최대 소비시장으로 꼽히는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전남 농수산식품의 수출 저변을 넓혀겠다는 전략이다.

자카르타는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를 보유한 인도네시아의 핵심 유통·소비 중심지로, 할랄 식품을 포함한 농수산식품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시장으로 평가된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동남아 시장은 물론 중동 할랄 시장으로의 확장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모집 대상은 전남도에 본사나 공장을 둔 농수산

기공식품 생산·유통기업으로,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한 제품 경쟁력과 포장·디자인을 갖춘 기업이다. 전남도는 12개 기업 내외를 선정해 현지 수출상담회와 판촉전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전남도 수출정보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인증 취득 비용을 기업당 2개 품목까지 지원하고, 수출상담회장과 판촉 부스 임차·설치비, 통역, 현지 이동 차량, 항공료 일부도 제공한다. 특히 인도네시아 전역에 매장을 둔 현지 대형 마트에 약 한 달간 제품을 입점시켜 실제 소비자 반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지 소평몰에서는 전시·시식 중심의 판촉전이 열리고, 1대1 수출상담회를 병행해 수출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운영한다.

이현규 기자 gnnews1@